

Collection of Selected Essays

The 3rd Annual Korean Language
Writing and Speaking Contest 2013
for Non-Koreans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SERVICE NY



KOREAN
CULTURE
RESEARCH,
INC.



Korean Cultural Service NY and the Korean Culture Research, Inc. held the 3rd Korean Language Writing and Speaking Contest for Non-Koreans at October 11, 2013. This collection is selected from the submitted essays for the contest.



Hosted by	Korean Cultural Service NY and The Korean Culture Research, Inc.
Sponsored by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King Sejong Institu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at Kyung Hee University

Writing Contest · Adult

내가
George Vourderis
Grand Prize
한국문화
예술

제목: 내가 좋아하는 한국 문화 예술
한국에서의 직장생활

이름: 이영준 George Vourderis

한류가 뜨고 있는 가운데 한국 노래, 한국문학 그리고 드라마 등등
세상의 구석 구석으로 퍼져나가면서 한국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외국 텔레비전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번 들어봤을거라는
"강남스타일"이 세계최고음악 기록을 돌파한 바 있다. 표면적으로
봤을때 대한민국이 문세창을 놀라게 만든 경제적인 발달을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내 관점에서는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전통 한국 문화 덕분이라고 여긴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한국 회사에서 인턴십하면서 느낀 한국인들의
끝을 모르는 열정과 어른을 향한 존경인 것이다.

지난 봄 학기때 서울 강남쪽에 위치해 있는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에서 무급 인턴으로 근무할 적이
있었다. 거기서는 한미 통상과 정치적 교류하는 데에
더러 저러한 업무와 번역 하면서 모개월동안 회사를 다녔었다.
보통 외국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직장 생활도 해보고
일을 끝내고 회사원끼리 잦은 회식에도 많이 참여해봤다.

회사에 처음에 들어갔을때 매우 긴장 했는데 일을 좀
하다보니까 금방 익숙해졌다. 그러다가 어느날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나도 모르게 매일 출퇴근할때 방긋방긋 웃으며

윗사람들에게 연사를 드리고 한때 헛갈렸던 회사 사연/제권 재도를
 이해하게 됐고 회의실에서 듣기만 하던 내가 적극적으로 손 들어
 회의에 이바지 하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한 회사의
 직원^다이 됐다는 것을 난생 처음으로 느꼈었다
 한국 동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앞으로 만나야 가는 모습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옛날 한국 문화에서
 보면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이념이 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도 현재 한국 문화에도 이 특징이 남아 있다고
 본다. 늦게 퇴근하고 가깝다가 억지로 회식에 끌려가는 날이
 있지만 한국 직장 문화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 아니라
 생^한가^한들어 낸 것 같다. 이런 문화 기반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렇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문화가
 뭐냐는 질문에 드라마, 노래, 혹은 요리라고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특색 성격과 문화적인 특성이라고 대답하는
 것 같다.

Writing Contest · Adult

자신을 발견한 한국여행

Minnia Feng

First Place

제목: (3) 자기를 발견한 한국 여행

이름: Minnia Feng

이번 여름 방학동안 귀국에 사실 좀 힘들었다. 지금 대학교 4학년이나가 졸업한
후에 무슨 일을 하고 싶든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든지 모든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가끔
미국 중일 '미리'라는 것 때문에 걱정된다. 여름 여행까지 두 달동안 뉴욕에서 일한일을
하니까 자기 몸으로 받은 월급으로 한국에 이주일동안 여행가려고 했다. 제일 관한 친구랑
같이 가서 한테그 친구가 한국말 전혀 몰라서 한국에 있을 때 나를 따라서 논다고 그랬는데 그게 나한테
좀 부담스럽고 우리 길을 물어봐봐 두려웠지만 여름 때 스트레칭 많이 쌓인 나는 그냥 마음을 놓고 한번
여행으로 놓고 싶었으니까 그냥 비행기표를 사고 뉴욕을 떠나는 날은 기다리기 시작했다. 속직히 말하면
내가 이번 여행전에 서울에 가 봤고 이번 한국 여행이 별로 특별한 게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 금년 8월 말에 한국에 가기 전의 나는 9월 초에 한국에서 돌아가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한국 여행동안 내가 본 길로, 느낀 길로, 깨닫게 된 길로 많이 성숙하고
'자'자를 발견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8월16일에 만직 친구 집에서 떠나서 JFK 공항에 갔다. 공항에 가는 길에 눈 벌써
가량이 매우 좋았다. 여행에 가는 느낌이 정말 최고다. 드디어 비행기에 앉아서 뉴욕이 네 시점에서
전전히 사라질때 내가 바로 뉴욕에 느낀 고맙다고 적지도 네 마음에서 사라진 것 같았다. 우리
너무 신나서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자지도 못했고 14시간 비행기로 왔는데 정말 4시간만
단 것 같았다. 드디어 서울에 도착하고 우리 호텔에 가는 버스로 타서 관광의 야경을 처음
봤을 때 왠지 마음이 갑자기 편해졌다. 그때 내가 이번 여행이 대박이겠다고
생각했다.

제1회 : 서울

우리는 서울에서 5일 동안 있었다. 물론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고 쇼핑도 많이 했고 유명한 사람도 봤는데 나한테 제법 인상적이었던 것은 카페였다.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구나. 서울에는 갈마다 카페가 있는 것 같고 거리의 카페는 외국처럼 다 똑같은 스타벅스가 아니라 다 자기 특성과 특별한 느낌이 있는 카페였다. 내가 원래 커피를 많이 마시었는데 ^{이번} 여중 이원형동반은 매일 너무 졸라서 매일 마시었는데 나한테 커피의 의미는 그냥 졸을 때 마시는 약이었다. 하지만 서울에 왔을 때 우리 캉캉 지근할 때 카페에 들어가서 내가 모자 한 잔 시켜서 앉으면 천천히 마신다. 예쁜 카페에서 이 모자의 달달한 초콜릿 맛과 커피의 향기를 즐기면서 친구랑 여유롭게 얘기도하고 자기 조용히 생각도 했다. 난 매일도 다른 카페에 가서 모자를 즐기다가 커피를 좋아하게 됐다. 아젠 커피는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푸는 게 됐다. 힘들때 그냥 앉아서 자기에게 시간을 줄 주고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 순간의 맛과 향기를 즐기면 문제가 없어진것 같다. 너무 빨리 무다가 주변의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면 그게 정말 문제라.

제2회 : 부산

우리 사신 이번 여행 너무 급하게 계획했으니까 지방에 거기 갔을때 아무 예약도 없이 그냥 KTX 5일동안 쓸수있는 표를 사서 기차를 탔다. 그래서 부산에 피곤에 도착했는데 나 정말 걱정했다. 내가 A형이냐 캉캉 계획 정황하게 해서 전제하는 사람한테 처음으로 눈 앞에 불명판 같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마지막 순간에 호텔을 찾고

어리이 가늠지도 모르게 지도를 보면서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계속없이 온다가 나오
모르게 그런 모리스다운 여행을 좋아하게 됐다. 자유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 그리고
북산에 이번 한국 여행동안 제일 인상적인 순간이 있었다. 우리 방문사에 갔을때 그 곳은
사면에 산만 있었고 현대 사회의 복잡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높은 조용하고
아름답고 공기가 시원한 곳에 내가 정말 처음으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 거기서 내가
이 세계를 하나 된 것 같았다. 마음이 훨씬 편했고 걱정이나 고민을 다 사라졌다.
우리 인생의 고민은 다 자기 마음 만든 것이지 ^{마음이 편하면 고민이 없어진다.}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럴수
없이 번라질거야 '자기를 얹지 말자고 다짐한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겠고' ^{현재에} 걱정할 때 있으면 이번
여행에 베풀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겠다. 젊은 시야를 주셔서 난 한국한테 정말 너무나
고맙고 더 많은 사람이 내가 느낄 것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Writing Contest · Adult

내가 좋아하는 한국 문화 예술

Carl Lewis

Second Place

제목:

내가 좋아하는 한국 문화 예술

이름:

Carl Lewis

한국 문화에 대해서 몇 개로 제일 좋아해요. 첫 번째는
하면 된다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한국 음식이에요. 마지막으로
한국 연예를 좋아해요.

한국에 대한 책을 읽었을 때 이야기 한 개가 눈의
두 여섯이요. 일제 시대하고 6.25 전쟁 후에 한국은 빈민
나라였어요. 당시에 이대통령은 교육하고 하면 된다
마음이라는 개념을 써들어대고 나라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에 이대통령이 정주영 현대 회장한테 어떤 일을
끝내라고 했어요. 다른 동료가 정주영한테 대통령의
명령을 이해했냐고 했는데 정주영이 '아니요. 근데
제가 꼭 할 거라고 했어요. ^저이야기를 읽고 나서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전에 미국 열심히 하는 마음이 들린 것 같아요. 그 바로
하면 된다 마음이었어요. 어렵고 처참한 일을 당할 때
이해 못 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해라고 교훈을
받았어요. 제 한국 친구도 심하게 일을 당했을 때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잘 보인다.

제 한국 친구와 한국 문화에 대한 대화했을 때
친구 '한국 음식 문화는 이전 번간이 넘다고 했어요. 비빔밥과
김밥과 부릉지 등 그런 음식이 한국을 많이 읽어요.

제가 한국에 갈 때 다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요. 다른 지역도 다른 먹물것을 잘 알고 싶어요. 각 음식은 특별한 역사가 있어서 다 알고 싶어요. 이 곳에서 한국 음식을 먹어도 진실 한국 음식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한국 역사하고 문화를 더 알고 싶어서 한국 음식을 많이 먹을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국 코미디와 바라이티와 영화를 다 좋아해요. KBS의 개그 콘서트에서 '느낌 아니까'하고 '반전'이라는 ^{새로고} 세밀 인기한 유행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너무 웃겨서 제 한국어 듣기 실력을 도와줬어요. 건담만하고 무한도전에 제일 웃긴 개그맨 유태석을 좋아해요. 매주에 방속곡과 동요와 같이 재밌는 방송을 배워서 제가 똑똑히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다 배우고 싶어요. 기쁜날의 신물하고 황해가 같은 영화도 좋아해요. 성과 막이라는 개념을 보여주셔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영화를 봐도 인간 마음에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 한국 문화에 대한 박해를 좋아해요. 그런 문화가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배우기 위해 저를 응원해요.

Writing Contest · High School

Shihua Silva Zhang
Grand Prize

제목: 내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이름: Shihua Silva Zhang

저는 한국어를 배우서 행복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과 한국 영화, 드라마를 많이 보시 한국어는 아주 재미있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살 때 학교에서 한국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그들한테 한국문화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친구의 집에 갈 때
 친구의 어머니가 날 친하게 지내고 마음이 아주 편했습니다.
 그후 부터 저도 한국친구와 더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한국어 쉬운 단어를 혼자서 공부하려면 찾았습니다. 그때는 고등
 9(구)학년입니다. 한국친구와 같이 지내서 한국어를 더 배웠습니다.
 일년후에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의 한국어반에
 학생이 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같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고 한국어반에서 새로운 생각을 갖았습니다.
 저는 언어만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반에 돌아오기 전에
 혼자서 벌써 인터넷에서 찾고 드라마를 보시 학교에 배울 때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한국어를 공부해서 도움과 자신감을 많이 주었습니다.
 길에서 한국사람은 얘기할 때 다 알았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식당에 갈때 음식을 시킬수 있을 때 자신이 많습니다.
 가끔 학교에서 한국 친구가 나에게 한국말로 비밀을 얘기해줄 때

기분이 아주 특별한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얘기해주어서
 제만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도 이해 못 합니다.
 한국어를 공부해서 다른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한국 친구를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한국어는 정말
 특별한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와 같이 한국말로 얘기 하면
 드라마의 주인공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기고 절대로 포기 않을 것 입니다.
 저는 가끔 정말 이상하고 상상이 많은 학생 입니다.
 지금 사춘기 때문에 곁에 곁어갈 때 잘 생긴 한국 사람 보면
 한국말 알아서 그들에게 인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서 제 인생도 재미있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도 많고 매일 새로운 경리도 있을 것 입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니깐
 심심하는 동안 한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한개만 아니고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 때문에 이런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한국말을 아는 딸이 있어서 자랑스롭습니다. 아프로 한국에 가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심심 해야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하기는 정말 좋은 경리입니다.

Speaking Contest

Juliana Kushner

Grand Prize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Speaking Contest

Karleta Peterson

First Place

내가
좋아하는
K-POP



Speaking Contest

Winnie Huang

Second Place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October 2013

Published by Korean Cultural Service New York
460 Park Avenue 6th Floor, New York, NY 10022
Tel: 212 759 9550
Fax: 212 688 8640
info@koreanculture.org
www.koreanculture.org

Copyright © 2013 by Korean Cultural Service New York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or mechanical, including photocopying, recovering, or by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publisher.